

## 성도들의 다양한 색깔로 무지개를 만들어



마음을 줄이게 하던 비가 멎고 좀 흐린 날씨가지만 무지개축제를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하루였다. 해가 구름 속에 숨은 선선한 날씨는 주님이 선사한 최고의 선물이었다. 굿 데이! 200명에 가까운 연합찬양대의 '이 땅에 평화를 이루자'는 찬양은 교우들 가슴에 평화로, 축제의 감동으로 메아리쳤다.

문동학 목사 가라사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고... 배우고 수용하며 낮아져서 12살 어린이로 되돌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진정 어린이처럼 놀고 자유로운 자가 된 하루였다.

안산 소금밭교회에서 온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 교우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교우들의 열정적인 할렐루야 찬미는 모든 교우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고 박호길 장로, 최상용,

김광일 집사 등의 사랑과 정성어린 인술. '병들고 아픈 자들은 모두 내게로 오라...' 텐트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 애쓰는 의료 봉사. 감사! 감사! 감사!

공 굴리기, 기둥타고 돌아오기, 목사님 태우고 보트들고 달리기, 다리매고 함께 달리기 등의 놀이는 승패와 관계 없이 한마음팀과 한가족팀이 서로를 격려하고 우의를 다지며 어린이처럼 자유로운 자가 되었고, 천하제일의 맛은 권사들의 연륜에서 나오는 손맛이었다. 먹거리장터가 개설되자마자 음식은 금새 동이 나고 말았다. 육개장, 떡볶이, 오뎅, 순대 등 다양한 메뉴... 5교구 4구역의 김은정 권사팀의 갖가지 전은 특히 압권이었다.

마지막 최고 칭찬감은 교회의 관리직 직원과 각 교구 구역별 자원 봉사자들이다. 질척한 날씨와 넓고 넓은 청소구역...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을텐데... 그러나 이들이 있었기에 청소도 눈감작할 사이에 깨끗하게 처리되었다. 고맙고 고마울 뿐...

### 터요람의 비전

### 인생의 전환점 되기를...

터요람공동체를 이끄는 남장회 안수집사는 터요람공동체의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먼저 터요람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과정으로서의 참 의미를 깨닫고 아름다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게 한다.

-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돕고 더 이해하는 계기로 삼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든다.

- 어렵지만 긍정적이며 희망적으로 오히려 남을 돕는 배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든다.

- 자랑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만든다.

- 실직자뿐 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돕는 폭넓은 공동체를 만든다.

### 축제의 시작인 예배 풍경

축제의 날 드리는 연합예배는  
새도도주를 담는 새부대로의 출발

지난 5월 25일, 오전 10시 10분 전,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급히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들은 가족을 재촉하며 우산을 부지런히 접는다.

잠시 1층으로 내려가보니 중강당에는 중등부 학생들이 진지하게 앉아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1층 유년부 2회의실은 본격적인 예배를 시작하고 있다. 울동에 맞추어 발을 구르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다.

다시 본당에 올라오니 이미 김병모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참 즐거운 노래' (찬송가 49장)를 일제히 제창하는 성도들은 자못 오랜만의 교회 축제에 기대감으로 흥분된 모습이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약간 늦는 바람에 마련된 좌석에 나란히 앉기보다는 여기 저기 몇몇씩 섞여앉아 예배 풍경이 이채롭다. 무대 앞에는 7인의 현악팀이 찬조출연하고 있고, 색색옷으로 차려입은 찬양대의 복장을 보니

가히 무지개찬양대이다.

성경말씀 '어린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을 낭독한다. 이어 색색의 티셔츠로 차려입어 대학생의 젊음이 느껴지는 무지개빛찬양대를 지휘하느라 그런지 집사는 소년같은 모습이었다. 넘치는 신선함, 부드럽고 생기로운 영의 찬양은 무지개축제날의 예배를 더욱 은혜롭게 만들고 있었다.

'무지개를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비를 뿌려 주신다'는 재치있는 목사님의 인사는 날씨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의 근심을 간단히 걷어내었다. 이어서 무지개축제를 영상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짙하게 울리는 화목한 가족의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메아리친다. 설새없이 쏟아지는 재미있고 다시 목상하게 하는 문답식의 설교말씀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같이 빨려 들어간다. 안떨어지는 발길을 서둘러 다른 예배모습을 찾아나선다. 살며시 1층으로 내려가 보았다.

10시 50분, 1층 3예배실에는 50여명의 성도들이 가족간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수유실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방(예절실)에서도 약 60명 정도로 보이는 어

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실 창밖으로는 벌써 음식 굽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느낌이다.

/ 김용직 기자

### 무지개축제 '이모저모'

지난 5월 25일, 무지개축제가 정신여중고 운동장에서 열렸다. 종합경기장 남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은 주차안내요원로부터 주차권을 받아 주차하였으며 예상보다 많은 성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였다. 교내로 들어섰을 때 청년 스텝들을 중심으로 찬양으로 성도들을 환영하는 모습이 보였다. 주일예배는 대예배실의 예배실황을 중예배실, 소예배실, 지하식당 등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하여 중계하는 방식으로 드러졌으며, 2, 3, 4부 연합예배인 관계로 성도들이 분산되어 차분한 가운데 예배가 드러졌다.

1부예배에 참석한 진행요원과 먹거리장터 봉사자들은 연합예배가 드러지는 동안 놀이마당, 축제마당, 먹거리장터의 준비에 분주한 손길을 놀렸다.

예배가 11시에 마쳤을 때에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지만 성도들은 준비된 교구별 식사장소를 찾기 시작했고, 먹거리장터를 찾는 이들도 많았다. 메뉴별로 200명에서 1,000명까지를 예상하여 준비한 음식이었으나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불티나게 팔려 동이 나버렸다.

예상보다 30분 일찍 1시 30분경에 무지개운동회가 시작되었다. 놀이마당과 축제마당의 모든 놀이기구가 내려지고 운동장으로 모여 한마음팀과 한가족팀으로 나뉜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매 경기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색깔이 하나되는 무지개처럼 성도들의 하나됨을 느끼게 해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4시에 시작된 기독교TV 공개방송의 시작은 우리 교회 어린이합창단이었고 이어진 PK, 조수아, 좋은씨앗, 신형원 등의 순서에서도 성도들만이 느낄 수 있는 웃음과 기쁨을 맛보았다. 공개방송이 마칠 때까지 1,000여명의 성도들이 함께 하였으며, 6시경 공개방송이 마친 후 성도들의 자발적인 청소로 끝난 자리는 너무도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 서길원 안수집사의 '회심기'

지난 5월 첫 주에 일어난 일이다. 늘 채찍질하고 자성하지만 그 날은 그만 주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말았다. 토요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토요일 약속은 주일예배를 등한하게 한다. 동창회, 향후회, 사업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 결혼식 등도 가능하면 피하려고 한다.

5월 첫째 주! 금기시하던 토요일에 고향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친구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모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몹시 반갑고 즐거워했다. 주일예배를 의식하며 조

심하던 마음이 분위기에 휩쓸려 그만 객기에 빠지고 말았다.

친구 따라 강남을 갔다 왔으니 이튿날 주일예배는 엉망이 되고 마음은 천근만근의 중압감으로 죄책감에 빠졌다. 마누라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딸들에게도 체면이 서지 않는다. 예배도, 안내하는 것도 모두 차질이 생겼다. 가능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것을 그만 파기한 것이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의 나이 값도 못하고 더군다나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리는 처절한 고통을 맛봐야 했다.

토요일의 약속과 만남. 앞으로는 정말 금기사항으로, 주일성수를 위해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바른 믿음과 행동으로 십자가만을 바라보겠다. 양심에 고통받고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소가 풀을 먹듯이 말씀을 먹고 울곧게 살아가고 싶다. 지은 죄를 자책하며 토요일은 주일성수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겠다. '주일예배를 꼭 준비하자!' 마음 속으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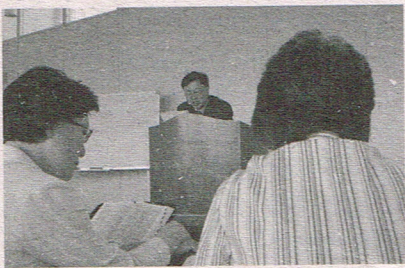
창밖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의 물결과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 사랑하는 디도야...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포근한 사랑이 나를 감싼다.

▶ 기획취재 / 성경공부반을 가다 ② 3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되는 봉화기 성경공부가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각 성경공부반의 특징과 분위기를 스케치해 교우들에게 소개해주는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김성관 목사 성경공부)

성경공부반 「지성소 밖으로 나오신 하나님」

## 회장 가운데로 난 '새로운 살 길'을 찾는 시간



여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싱그러운 나뭇잎들이 오월의 교정을 빛내던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교회 5층 찬양연습실에서는 김성관 목사가 이끄는 성경공부가 진행되고 있었다.

김 목사는 누구에게나 친근한 웃음과 편안한 모습으로, 말씀은 생명력 있는 순수한 열정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오월의 햇살처럼 순결하게 다듬고 계셨으니 공부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구동성으로 '공부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쉬운 설명으로 이해가 빠르며 재미가 있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목사님의 웃는 얼굴만 보고도 마음이 편하고 은혜가 된다.' '목사님이 라면 웬지 어렵기만 했었는데 있는 그대로 격의없이 해주셔서 좋다.'라며 즐거워했다.

김 목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와 제사, 성막과 성전을 동시적으로 연구해봄으로서 성도들의 성경적 이해를 돕고 아울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셨다. 구약에서의 성전의 의미, 성전이 되신 예수, 그 과거의 유일회적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통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은혜 등 신구약 성경의 큰 흐름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

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또한 참된 성도의 삶의 의미를 깨우쳐주시며 앞으로도 공동체 예배의 모습과 일상생활의 예배, 현대적 열린 예배와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이 귀한 시간이 좀 더 많은 교우들에게 소개되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홍정미 집사는 아이가 아직 어려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며 열심으로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포괄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주신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확실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스승의 날 즈음이기에 교우들은 목사님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고 싶어했지만 목사님은 또 바쁘게 심방을 가셨다. 공

부가 끝난 후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받은 은혜와 말씀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도 가족적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예수님이 성전이듯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긴 여운으로 남아있다.

/ 김영미 기자

고등부 멀티미디어부

## 포토갤러리 개최

'요즘 아이들과 코드가 잘 맞고 계십니까? 아이들의 유머를 듣고 공감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기 힘들다. 고등부 교사 역시 비디오 세대에서 멀티미디어 세대로 진화한 아이들과 코드를 맞추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밖에 볼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다면 그만큼 교육은 효과적이다. 아직까지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을

권사회

## 전임교역자 부부와 함께

권사회에서는 지난 5월 20일, 삼성동 소재 '로터스가든'에서 전임교역자 부부를 초대하여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는 목사님 9명, 전임 전도사님 2명, 사모님 7명, 자녀 3명, 권사님 51명이 참석하였다. 올해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들과 가까이 접할 기회가 적었던 권사님이 계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서로를 의식하고 연결시켜주는 사랑과 일치의 공동체성으로 편안하고 화기에 찬 분위기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서로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진솔한 모습 속에서 삶의 보람을 만들어 가는 목사님들의 가정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이동순 기자

통한 교회학교의 활성화는 분명 주님의 교회가 가야할 길이라고 믿는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의교회 고등부 멀티미디어부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다양한 모습들로 사진전을 열고 있다. 사진전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며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기간 및 대상 : 5월 한 달 동안 주님의교회 포토갤러리에 올리는 모든 사진에 대하여 (5월 28일 오후 6시로 마감됨)

▷시상내역 : 대상 1명, 장려상 1명, 인기상 1명, 작품상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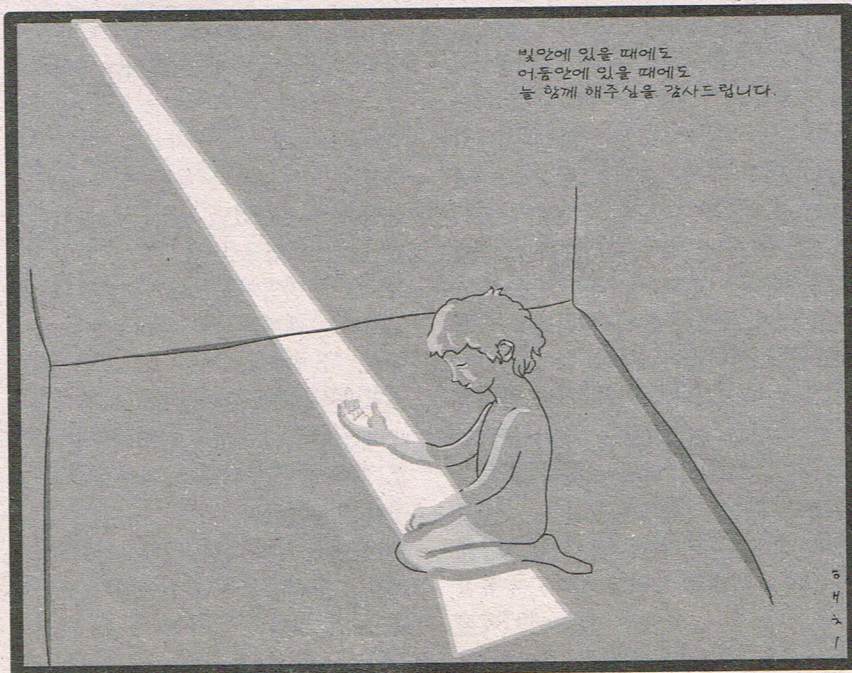
▷상품 : 상상초월 (예 : 중국기행 - 광동성과 베이징을 경유하는 3박 4일 코스 등)

▷심사기준 : 사진의 주제는 제한이 없지만 주님의교회 고등부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진에 대한 설명 또한 작품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임. 제목과 설명이 신선하고 재미있으면 가산점. 무엇보다도 조희희수와 리플릿수를 합산하여 선정함.

▷심사위원 : 김현령 전도사 및 멀티미디어 부원 (엄인호, 김영민, 장유진, 임봉섭)

▷발표 및 시상 : 6월 1일(주일) 고등부 2부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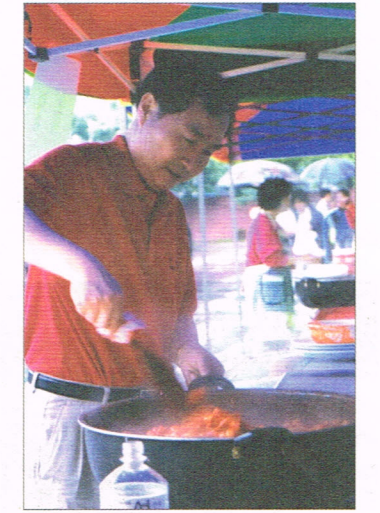
고등부 자녀를 둔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고, 고등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며 사진도 구경하고 아이들의 글도 읽으며 요즘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미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짝 엿보기 바란다. 고등부 홈페이지 주소는 [www.junimschool.org](http://www.junimschool.org)이며 항상 열려 있다.





▷ 예배와 먹거리장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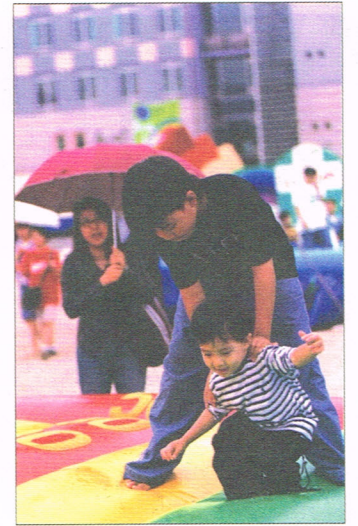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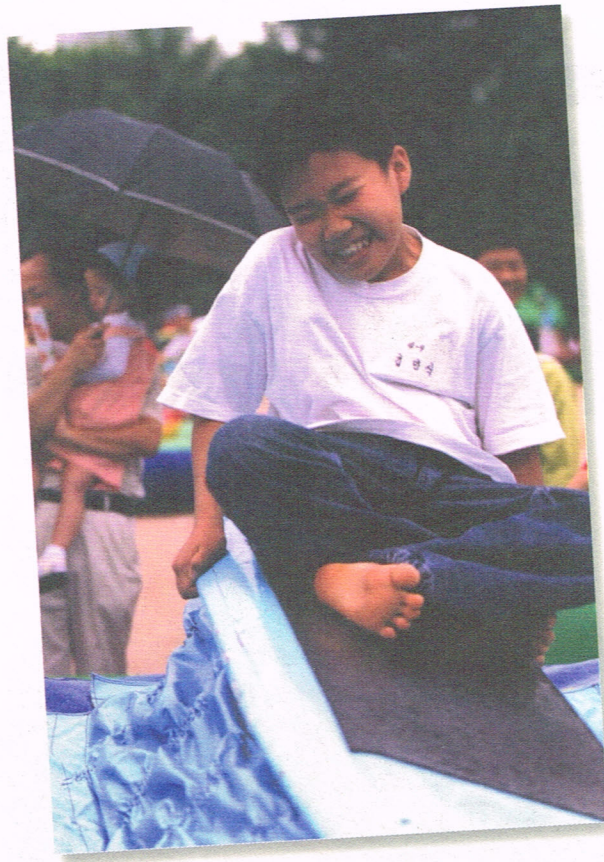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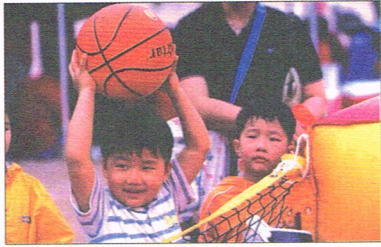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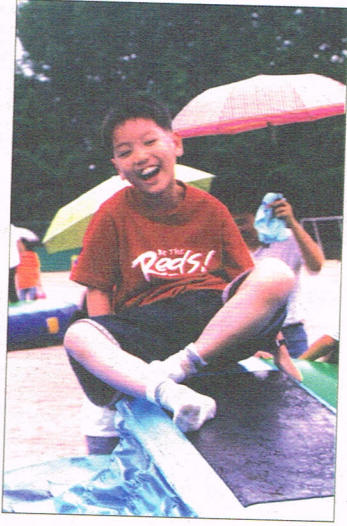
# '금강산도 식후경'





▷ 놀이축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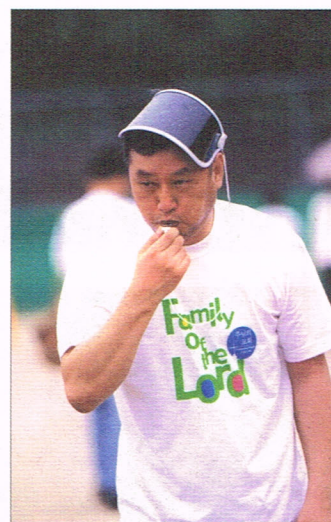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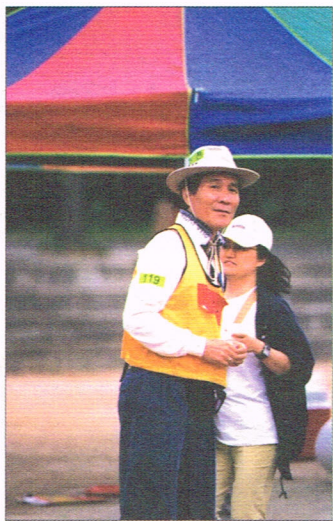
# ‘아빠 저것봐요~’





▷ 무지개운동회

# '아름다운 성도들의 무지개'





▷ 클릭! 아름다운 우리 교회

#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구역탐방 / 6-8구역

## 말씀을 실천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푸르름과 싱그러움이 짙어지는 5월 16일 저녁, 조금 일찍 하계동 6-8구역 장득순, 이은숙 집사 덕(학여울 청구 아파트)에 도착했다. 정희성 교구목사의 제안으로 교구에 편성된 장로, 안수집사가 구역모임에 참가하는 뜻있는 시간이었다. 오후 업무를 조금 일찍 정리하고 도착한 시간은 오후 8시.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에서 반겨주시는 장 집사님 부부는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시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차분하면서 조용히 구역모임을 인도하는 김은성 구역장. 찬송을 부르고 길라잡이와 성경암송 구절을 암송한 후 구역 공동체를 위한 기도, 구역원 각 가정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수고하는 구역장·권찰을 위해 기도하고 김은성 구역장의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정리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의 느낀 생각과 간증을 나누었다.

13명의 참가 식구 중에 한상훈 교수와 권정에 권사가 오늘이 39주년을 맞는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을 은혜로운 간증 가운데 알게 되어 김은희 권찰의 케익준비와 더불어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구역이 어디 있을까?'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멋있는 구역이다. 또 장득순 집사의 귀한 시계 선물에 연로하신 한 집사의 얼굴에 홍조를 띠며 기뻐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성령충만함이었다.

얼떨결에 필자도 넥타이 선물까지 받았고, 구역장의 해외출장 시 라벤더

차(tea) 선물에 대한 화제와 2년만에 살림을 나서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는 조은경 집사 가정,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이은숙 집사, 정호제·이승임 부부의 간증, 이재덕 집사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영숙 집사의 말씀과 장득순 집사의 때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덕본 간증 - 교회 다니고 담배 안피워서 장관 비서실에 보직 발령 받은 것, 강원도에서 교편생활하

성지순례시리즈 5

### 바울의 해변...

안디옥을 출발해 실루키아로 향하는데 좁은 국도를 지나느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허름하고 가난한 어촌 마을을 작고 왜소한 동양인들이 왜 찾아오는지 순박한 마을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본다. 동행한 선교사님이 말씀하신다. "사람들에게는 보고 싶은 것이 저마다 다르고, 보고 싶은 것만이 눈에 보여요..."

어느 해변 지점에 도착하자 터키 고고학자의 설명에 현지 목사님의 통역이 이어진다. 오론텐스(Orontes)강 어귀의 북쪽 8km, 그리고 안디옥에서 25km 떨어진 곳에 놓여진 실루키아는 B.C. 301년 실루쿠스 니카토르에 의해 세워졌다. 역사의 격변을 거치며 이 지역을 차지한 로마는 B.C. 64년에 실루키아를 자유도시로 만들었고 이 곳은 상당 기간 항구로서 번창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강을 따라 흘러온 토사로

던 부인의 서울 발령 이야기 - 그리고 삶의 연륜에서 우리나라의 권정에 권사의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 등으로 자정이 가까워지도록 성령 가득하고 은혜 충만한 대화와 친교는 끝날 줄을 몰랐다.

우리 교회 구역모임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 이종석 기자

실루키아는 항구의 기능을 상실했고, 게다가 몇 번의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다. 오늘날의 실루키아는 광활한 폐허로서 1937년 이래 수많은 고고학적 탐사를 받고 있다.

사도행전(13장 4절)을 보면 바로 이곳 실루키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배를 타고 구브로(현재의 키프로스)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님의 영성은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소리없이 대해(지중해)로 이어졌던 것이다. 번창한 실루키아 항구를 떠나며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허리까지 자란 해변의 들풀들이 바람에 흔들린다. 그 가운데 서니 '모든 육체는 풀같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말씀이 절로 떠오른다. 바다를 바라보았다. 사명을 가슴에 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배에 오르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떠나야 될 때에 떠날 줄 아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교회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씁시다

### '사랑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도 서두에 '하나님' 대신에 '사랑의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 등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끝낼 때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후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기도는 일차적으로 성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16)고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 서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되어 있다. 역시 이 속에도 성부 하나님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기도의 본임을 알아야 한다. (기독교용어연구회 제공자료)

순박한 학생들이 우리가 가는 길에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준다. 어렸을 적 시골에서 자라면서 지나가던 차를 보고 손을 흔들던 기억이 떠올랐다. 고향에 온 느낌이다. 고향... 우리는 바울의 고향, 다소로 길을 향했다.

/ 하화주 집사

신앙수기 ① 이 글은 수요일에 이재철 집사(5-10구역)의 간증문으로 이 간증을 듣지 못한 성도와 들었지만 다시 글로 접하길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요약정리하여 2회 연재한다.

## 현대건설 '이란 스타스' 현장

이 풍요로운 주위 환경과 안락한 생활로부터 동 떨어져 삭막하고 황량한 사막 속에 내 팽개쳐질 때의 그 아픔을 생각해 보았는가? 인간은 몸과 마음이 곤고할 때 비로소 어떤 막연한 상대를 갈구하게 되는 것 같다. 나는 간사하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건설회사로 담당하는 일은 시공이다. 시공이란 최일선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인력, 장비, 자재를 관리하며 그들을 지휘하고 같이 뛰어야 하는 그런 업무다. 군대로 치면 최전방에서 적과 대치하여 싸움을 하는 전투 부대와 같은 것이다. 업무의 특성상 때로는 난폭한 언행이 오고가고, 때로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마주쳐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로는 너무나도 잦은 회

의를 느껴야 하는 그런 환경이다.

2001년 4월 초, 나는 회사로부터 중동지역의 이란현장으로 파견근무 명령을 받았다. 얼마나 가기 싫은 곳인지... 그 현장은 우리 회사 역사상 역대 제일 큰 프로젝트였다. 한국인이 400명 정도였고 삼국인이 1,000명 그리고 현지인이 10,000명 정도인 초대형 현장이다. 보세구역에 정해놓고 울타리가 쳐진 제한된 캠프 구역 내에서 그 많은 인원이 모두 숙식을 하며 일을 하니 마치 군대 같다고 해야겠다. 그 지역은 절벽해를 접한 곳으로 5월부터 초가을까지 약 6개월간은 섭씨 40~5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와 습도로 한낮에는 현장에 30분만 서있어도 신발 속에 땀이 고일 정도로 오지 중 오지이다. 그 나라에서도 그 지역에 산다고 하면 인

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다. 모두가 회피하는 지리적 조건이지만 건설이란 그런 황무지를 일궈서 사람이 사용할 시설을 만드는 것이기에 언제나 악조건을 피해갈 수가 없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이나마 가지고 있었기에 그 환경을 접하면 서도 그나마 담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모두들 '더위 때문에 죽겠다' '너무 오지라서 미쳐버릴 것 같다' '술을 먹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것 같다'는 등 불평들이 대단했다. 생각해 볼 때 그 옛날 이러한 광야에서 홀로 40일간을 견뎌내셨다는 예수님의 고행은 어떠하셨을까? 나에게 그런 것은 사치스런 불평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혹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는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눈을 더 크게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고 있다.

현장에 부임해 짐을 풀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캠프 내 교회이다.

그러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오직 몇몇 교인들이 예배드릴 장소 없이 식당 한 귀퉁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이었다. 교회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만드는 것이 모두에게는 두려움이었던 것이다.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우리는 예배당을 위해 제목을 놓고 기도드렸다. "주님, 주님을 뵈올 수 있는 제단을 이 곳에 허락해 주세요."

모두들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서인지 내가 세우기 시작한 교회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길 하나하나에 너무나도 눈물겨운 정성이 깃들여져 있었다. 십자가를 세울 때 두려워하기도 했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란 땅에서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헌당예배를 드릴 때는 모두들 눈물로 기도드렸다. 현대건설이 해외공사를 해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교회 이름은 '스타스코교회'라고 불렀다.

(다음 호에 계속)



티베트선교보고

## 라마불교의 본산에 복음의 씨앗을

현재 급속한 경제개방과 함께 세계적인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인구 14억의 중국은 과거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의 땅이기도 했다. 이 중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8천에서 1억에 가까운 한족 그리스도인 지하모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내에서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이들 한족 기독교인들이 선교하기 어려운 55개에서 90개에 이르는 소수민족집단이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중국 본토의 서남쪽에는 토번, 강족 등으로 알려진 설상의 거주지, 눈위의 집이라는 의미의 티베트종족이 살고 있다.

티베트종족은 평균 해발 4,000m 이상의 히말라야 고산지대인 티베트자치구에 약 460여만명이 살고 있으며, 인접국가를 합하여 총 6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 내 대표적인 미전도종족이다. 육신은 멀하나 영은 다른 육체를 빌어 환생한다는 환불(살아있는 부처)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라마불교를 신봉한다.

티베트족의 조상들은 과거 7세기 경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를 형성하여 중국과 인도를 제압하고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 교역을 장악할 정도의 융성한 민족이었는데 당시 중국왕비 문성공주를 통해 들어온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강한 전투적인 기질은 약화되었고, 1,700년대에 이르러서는 중국

청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중국이 영국과 아편전쟁을 치를 때에는 영국과 러시아의 내정간섭을 받게 되었다. 2차세계대전 후에는 잠시 독립을 맞았지만 1950년 중국 공산당 정부의 무력침공을 받아 다시 강제 병합되기에 이르렀다. 1959년 독립을 위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이를 주도했던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립운동으로 사망한 티베트인은 유대인 대학살에 버금가는 120만명에 달한다. 지난 1987년 10월 중국은 유엔인권협약에 서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티베트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의 티베트해방은 티베트인을 노예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이므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국은 거대한 티베트 독립할 경우 다른 소수민족들이 연달아 독립할 것과 인도 파키스탄 등과의 국경선 상실 그리고 막대한 석유와 지하자원에 대한 우선권 유지 때문에 티베트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록 경제원조, 관광사업 육성, 서부대개발 같은 회유책으로 민족 감정을 누그러뜨리려 하지만 티베트의 독립의지가 감지되면 잔인한 방법으로 억압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벌목과 자원채굴은 극심한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고 있고, 1973년 이후 중국의 핵폐기물 저장소로 이용되면서 암

환자가 급증하고 방사능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식민지로서 민족적인 억압을 받으면서 그들은 이 땅이 아닌 내세의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며 더욱더 라마불교에서 구원을 찾고 있다.

현재 티베트자치구 수도 라싸에는 100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으며 한족으로만 구성된 지하교회가 있을 뿐이다.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의 영향을 받아 선교환경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한편 중국의 티베트통치는 라마불교의 약화를 가져와 티베트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라마불교에 기초한 정교일치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데 일부만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복음전파는 정치적인 민감성과 라마불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능하다.

티베트인들의 생활은 거의 종교생활이나 다름없다. 하루종일 마니퇴를 돌리며 '옴마니반메 흠'을 읊는 것이 그들의 일상. 만약 그들에게 마니퇴를 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생활'을 부인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그들의 스승은 라마승이고 그들 최고의 스승은 여전히 달라이 라마이다. 그들에게 달라이 라마를 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생활, 문화, 정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부인하라는 것과 같다.

달라이 라마의 나라 티베트. 이제 더 이상 신비의 땅, 금단의 땅이 아니라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와 중보자들에게 울바로 알려져 중보되어져야만 하는 땅이 되었다. 지금보다 좀더 나은 삶을 위해 오늘도 사원을 향해 온몸을 던지는 이들에게 참 구원과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가 필요하다. 이들의 죽어가는 육체와 영혼을 위해 울어줄 중보자가 필요하다.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갈망하는 티베트인들에게 복음의 해답을 전해줄 일꾼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이 땅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누군가는 이 땅에 가서 섬겨야 한다. 지금까지 물신주의, 힘과 경제논리로 가려지고 묻혀버린 티베트민족을 위해 우리 두 손을 들어 중보기도하기를 호소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공활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공활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호세아 2:23)

/ 오영석 선교사

## 교회소식

## ▶입교 및 세례식

입교 및 세례식이 6월 4일(수) 오후 8시에 중예배실에서 있다. 세례문답은 6월 1일(주일) 오후 1시 15분에 2층 중교수련실에서 있다.

## ▶담임목사 위임식

담임목사 위임식이 6월 8일(주일) 오후 2시 30분에 중예배실에서 있다. 노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위임투표의 결과와 노회법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 ▶공개방송 일정

5월 25일에 있었던 무지개축제는 녹화방송으로 기독교TV에서 편집하여 방영하게 되며, 6월 5일(목) 오후 7시와 6월 7일(토) 오후 5시에 2회 방영될 예정이다.

복지선교회 월례회

##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눠주기를

5월 18일, 오후 1시에 지하 1층 식당 옆에 있는 작은 별실 대화방에서 복지선교회 5월 월례회가 열렸다. 본교회의 사회선교위원회에 소속된 복지선교회는 약 20여개의 복지단체에 연간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 선교기금을 보내고 있다.

이충길 회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복지선교회 모임에는 남자 집사 네 명과 권사 및 여자 집사 등 일곱 명의 조출한 모임이었다. 조용히 뒤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이분들은 물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도 나눠주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일한다.

이번 달 주요 안건은 새롭게 도움을 요청한 단체를 지원하는 문제와 기존 지원을 받는 단체를 확인하는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현재 20여개 단체가 주님의교회로부터 월별 평균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 8개 단체는 서울에 있지만 나머지는 지방에 있다. 더러는 노인복지단체, 병원, 그리고 선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희망의 집, 은혜의 집, 참좋은 집, 소망의 집 등 장애인 관련 재활원이거나 복지단체이다.

이번 모임에서는 포천의 P목사가 이끄는 나눔의 집이나 잠실의 H씨가 대표로 된 탈북자 아동학생교실 등에 대한 신규 지원 여부가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한편, 기존의 지원을 받은 단체 중 독립한 단체와 현재 연락이 잘 되지 않는 S단체 등을 방문하여 좀 더 자세히 실태를 파악하고 확인하기로 했다고 한다.

/ 김용직 기자

## 고등부 학부모 간담회

## 자녀를 새롭게 이해하는 의미있는 시간

5월 18일, 고등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약간 들떠 있었고 조금은 긴장감에 싸여있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와의 간담회가 있기 때문이었다. 5층 청년부 예배실에 약 50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하였고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다.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대화는 아이들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졌다.

학교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부모의

기대, 아이의 희망, 선생님께 부탁하는 말씀,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현실에 대한 이해,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가정에서의 역할과 선생님의 역할, 평소 생활속에서의 기도, 성경공부, 전도 등 아이들의 일반적인 생활과 신앙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열심히 설명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간담회는 12시까지 계속되었다.

침묵과 무표정 뒤에 있는 아이들의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꿈과 포부를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을 향한 속마음의 일부를 털어놓은 부모님들의 가벼운 마음과 기쁨, 아이들을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된 선생님들의 속 깊은 사랑이 만난 시간이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이들이 만들어 갈 앞날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은 5월의 햇살 속에서 아이들이 신록처럼 싱그럽게 피어날 것을 기대하며 회의장을 나섰다.

/ 박혜경 기자

##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 ◆주님의교회를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 문동학
  - 부목사  
김병모 김성관 김원재 윤덕영 이상훈  
이창현 정현희 정희성
  - 전임전도사  
김현영 박의일
  - 교육전도사  
고승제 김보선 김진경 유상열 이영란  
최인영 추정순 황병기
  - 시무장로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정재경 양동훈  
계학용 임동진 김소일 성백술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윤좌원 전세표  
이병식 최창섭 박시만 황기연 김현덕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전화 : 02-416-5181  
홈페이지 : www.pcltv.org

## ◆기사제보안내◆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줄함을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핸드폰 : 011-466-4736

▶이메일 : chhylee@korea.com